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름	정*원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Winona, Minnesota
파견대학	Winona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17년 8월 ~ 2018년 5월
귀국여부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미국 중북부지방의 오대호 부근에 있는 미네소타 주의 위노나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합니다. 미국전체로 봤을 때 위노나는 시골이라고 보시면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가장 멀리 떨어진 건물사이가 약 10분도 안돼서 도착할 정도로 대학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며, 대학 주변에도 딱히 그리 놀만한 것이 없습니다. 맘먹고 딱 공부하기에는 좋습니다. 놀거리는 보통 학생들끼리 홈파티를 하거나 몇 없는 바에 가서 노는 분위기 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 암트랙 스테이션이 있어서 미니애폴리스나 시카고로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그러나 미니애폴리스까지는 약 2시간 반이 걸리고 시카고까지는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가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한국음식이 그리울 땐 친구 차를 타고 미니애폴리스나 로체스터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요리해 먹곤 하였습니다. 주변에 East lake라고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여름엔 카약이나 카누, 자전거, 보드, 해먹 등을 빌려서 놀 수 있습니다. 호수 경치가 예뻐요. 호수 뒤쪽으로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슈가로프라고 등산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암벽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실내암벽타기를 공짜로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갈빈하이츠라고 슈가로프 올라가는 산 쪽에 야경 예쁜 곳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미시시피강쪽으로 차타고 조금만 가면 은하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밤에 별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학교에서 걸어서 5분정도 거리에 있는데 굉장히 아늑하고 분위기 좋습니다. 학교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잘 구비되어있어서 좋습니다. 가끔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료로 공짜 피자나 먹거리를 나눠줍니다. 겨울에는 눈이 엄청 미친듯이 내립니다. 패딩 준비하세요. 바람도 많이 불지만 우산도 꽤 유용합니다. 신발은 방수되는 운동화면 좋습니다. 눈이 와도 대부분 인도는 치워져 있습니다.</p>

학교에 피트니스가 굉장히 잘 되어있습니다. 운동기구도 다양하니 많이  
 있고, 매일 저녁시간에 요가나 필라테스, 댄스요가, 타바타 등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농구장이나 축구필드에서 농구나 축구를  
 자유자재로 할 수있으며 배드민턴도 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다  
 빌려줍니다.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 맘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운  
 날은 몇 안되고 1년 중 대부분 기간이 춥기 때문에 수영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수영은 잘 못 즐기게 되더군요. 수영 시에는 수영복과 물안경은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writing센터가 있어서 자기가 쓴 글이나 에세이  
 등을 교수에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첨삭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사회라지만 한국인이 20명 정도로 꽤 많습니다. 결속력이 커서 한국인 안  
 만나고 다니려고 해도 어떻게든 잘 만나지게 되니 혹시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서 학교 생활  
 전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숙사는 보통 학교주변에  
 있는데 이스트레이크라고 하는 신축기숙사는 학교에서 20분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셔틀이 운행하기는 하지만 눈 오는 겨울엔 솔직히  
 체감상 오가기 너무 많습니다. West 캠퍼스에도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셔틀이 운행하지만 잘 안 옵니다. 거기 학교 식당이 본 캠퍼스보다  
 맛있어요. 월마트가 이스트레이크 기숙사에서 걸어서 30-40분 정도  
 걸리는데(셔틀이 운행하지만 정말 거의 없어서 한번도 이용안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겨울엔 차타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마트보다 살짝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미드타운이라고 그래도 학교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마트로 자주 갔습니다. 대부분 식당이나 마트 등이 저녁 8시면  
 마감한다고 생각하세요. 학생들도 9시면 다들 잠들고 6시에 일어나  
 여유롭게 아침 먹고 학교 갑니다. (특히 여자들. 남학생들은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추가로 내는 fee가 너무 많았습니다. 기존에  
 제시한 fee보다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되실지도 몰라요..  
 기숙사보다는 가능하시면 off-campus에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반 값  
 이내로 싸요. Wazoo list라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subleser 구하는 공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조심히 꼼꼼히 알고 가시면 유용할 것 것 같아요.  
 그래도 첫 학기는 적응하기 힘드실 테니 기숙사 사시는 걸 추천해요.  
 룸메이트들과 추억 만들며 친해질 기회가 방 같이 쓸 때가 많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 다 착해요. 미국이라는 사회자체가 서류 위주로  
 돌아가서 뭔가를 요청하거나 검증 시에도 모든지 서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미리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데스크탑을 나눠줍니다. Hp와 맥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hp가  
 터치스크린으로 더 좋습니다. 학교 프린터기(1000장까지 무료 프린트)나  
 모든 수업이나 체제가 학교에서 나눠주는 컴퓨터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p>2017-2학기 와 2018-1학기 수업</p>	<p>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2017-2학기에는 다음과 같은 수업을 들었습니다.  ENG 107 ( ESL: Academy Reading and Writing 2 ) : 레벨 테스트 후  교환학생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수업내용은 소재가  지루했지만 writing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OR 100 ( Introduction to higher education ) : 교환학생 모두 미국 생활  적응 위해 \$20 추가 fee를 내고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ACCT 212 ( Managerial accounting principle ) : 복수전공 수업으로  관리회계 과목입니다. 제가 수강했던 교수는 3시간 연달아 수업이었는데  컴퓨터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에 공부를 해야지 따라 갈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ACCT 211 ( Financial accounting principle ) : 복수전공 수업으로 회계원리  및 중급회계 초반 내용입니다. 수업이 교환학생을 배려해주어 굉장히  친절하고 알아듣기 쉬워 따라가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업 추천합니다.  CS 116 ( Web technology 1 ) : 전공수업으로 웹브라우저 프로그래밍 하고  디자인 하는 과목입니다. 중국교수가 수업했는데 굉장히 쉽고  재밌었습니다.</p> <p>2018-1학기에는 다음과 같은 수업을 들었습니다.  PHIL 110 ( Critical Thinking ) : 교수의 말이 너무 빨라 상대적으로  알아듣기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교수가 강단에서 눈감고 책읽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럼 학생들은 책을 보며 따라가는 패턴이었는데 과제와  출석 모두 없습니다. 100% 시험으로 테스트가 점수가 결정됩니다. 논리적  사고를 위한 과목으로 수학 및 삼단 논법 및 명제, 논리적 오류 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개인적으로 재밌었으나 대부분 학생들은 흥미를 잃는  수업이었습니다.  CMST 191 ( Introduction to public speaking ) : 레귤러 학생들이 모두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업입니다. 저는 듣지 않아도 되었지만 스피킹을  늘리고 싶어 들었던 과목입니다. 매주 발표가 있어 따라가기 가장 벅찼던  수업입니다. 스피킹에 대한 부담감이 많은 만큼 자신감있게 잘만  따라가면 스피킹이나 발표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PESS 144 ( Yoga 2 ) : 일주일에 2번씩 수업하며 학기 중간에 수업이  끝납니다. 요가를 수업시간에 진행하며 간간히 과제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PESS 144 ( Pilates ) : 요가와 비슷하게 수업시간에 필라테스를 합니다.</p>
---	---

	<p>Ballroom dance 교수와 같은 교수입니다.</p> <p>PESS 120 ( Ballroom dance ) : 소셜댄스로 그룹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파트너와 맞잡고 춤을 춥니다.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각 나라의 다양한 춤을 배웁니다.</p> <p>MKTG 265 ( Introduction to professional selling ) : 복수전공 수업으로 판매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다룹니다. 개인과제, 팀과제, pop퀴즈, 시험, 출석으로 이루어집니다.</p> <p>RTTR 144 ( Snowboarding 2 ) : 일주일에 1번 총 5번으로 근처 스키장에 가서 강사에게 배웁니다. 갈 때 차량은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첫 수업에 친구를 사귀어서 친구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p> <p>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오리엔테이션이 학기 시작 몇 주전에 진행되고 몇 일간 합니다. 이때 모든 수학이나 영어테스트를 치루고 이 테스트는 후에 들을 수업 레벨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학은 한국인은 웬만하면 다 100점 맞을 정도로 쉬워서 걱정할 필요없고 영어수업은 보통 중급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학기 시작된 첫 주에는 모든 교환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 수업이 하나 있는데 학교 생활 전반적 적응 위한 수업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필요한 수업입니다. 나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빼먹고 안 듣기도 합니다. 1학점 짜리 수업인데 20달러를 fee로 추가로 내야합니다. 담당부서나 담당자는 kit라는 사람이 교환학생 전반을 관리하고 각 학과 담당자가 있어서 담당교수가 학과에 대한 부분은 책임집니다. '000 night'라고 각 나라마다 축제 같은 게 있는데 각 나라별 동아리가 여는 축제입니다. 한국인들은 자동적으로 거기 한국학생들이 코리안 클럽에 자동적으로 가입시킵니다. 그래서 Korean night때도 뭔가 역할을 맡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모든 학생들은 major가 minor 프로그램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필수로 major하나, minor 2개를 듣는 과목 외에 따로 활동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사전에 들은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추억이었습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2달은 여름이고 1달은 봄 혹은 가을이고 나머지 모든 달은 겨울입니다. 매일 거의 눈이 내립니다. 공기가 매우 좋고 날씨가 청명합니다. 매우 건조합니다. 수질도 한국보다 안 좋아서 피부 왕창 망가져요. 필링제,</p>

	<p>바셀린 필수입니다. 바셀린 근처 마트에서 싸게 팔아요. 손톱깍기와 때밀이 수건, 면도기 꼭 가져가세요. 석회수 섞여있어서 잘 안씻기고 때가 금방 쌓입니다. 평소에도 쓰고 보드나 스키 탈 때 유용합니다. 방수되는 바지도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패딩바지 가져가서 보드탈 때 입었습니다. 모자는 보드탈 때 외엔 딱히 많이 안 썼고, 옷은 반팔옷이나 얇은것도 꽤 가져가세요. 두꺼운 옷만 많이 가져가면 낭패봐요. 간편하게 입을 자켓도 꽤 유용해요. 날씨 관련은 아니지만 여성분은 스타킹하고 수건, 마스크팩, 스킨케어, 옷, 샴푸, 펜, 하이라이터 같은거 충분히 가져가세요. 한국보다 질 안좋고 비쌉니다. 옷은 뉴욕같은데 가서 사재기 할 거 아니면 별로예요. 안 예뻐요. 미국브랜드(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나이키 같은 스포츠웨어 혹은 빅토리아시크릿, 코치)는 꽤 싸요. 미니애폴리스 아울렛에서 30달러주고 나이키운동화 샀어요. 머리하는거 비싸고 잘 못해요. 남성분 아니면 1년간 머리에 아무것도 안한다고 생각하고 가세요. 드라이기는 110v짜리로 가져가세요 220v짜리로 가져가면 전력 너무 약해집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매우 안전해요. 저녁때 많이 으스스한 곳이 많지만 돌아다녀도 위험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지나다니면서 대마초냄새가 나거나 대마초 한 사람 같은 사람 보이면 주의하세요. 너무 늦은 밤이어도 새벽에 security 차량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지만 전화해야 오고 한참 기다려야 탈 수 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0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0 ) 기타( )</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East lake라는 기숙사 중에는 최신 기숙사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공동 욕실 2개 공동 거실 및 부엌 각 1개, 세탁실1개 방 4개로 저는 개인 방을 사용했습니다. 방에는 침대, 옷장, 서랍 1개, 책상이 구비되어있었습니다. 와이파이는 기숙사와 학교에서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저는 폰도 전화나 문자가 필요할 때만 유심 결제해서 썼고 대부분 와이파이만 이용하면서 지냈습니다. 모든 룸메이트들이 초등교육을 담당했었고 그래서 모두 착하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이어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 기숙사는 2학년 이상이 쓸 수 있어서 통금이 없습니다. 가끔 룸메이트들이 자기 애인들 데리고 와서 놀기도하고 같이 지내기도 하니까 놀래지 마세요. A,B,C,D동 중에 저는 A동을 썼었는데 A동 바로 앞이 셔틀 타는 곳입니다. C동에 숙소 오피스가 있고 하우징 오피스는 학교 메인 건물인 크리즈코 커먼에 위치합니다. 식당도 여기에 다</p>

	<p>있습니다. 각 층마다 체크아웃이나 공지사항 전달 혹은 청소검사, 민원을 책임지는 담당학생이 존재해서 그 학생에게 건의사항이나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씨큐리티가 가끔씩 방 검사를 하러 옵니다. 원칙상으로는 방안에 술을 가져오면 안됩니다.</p> <p>2학기때는 subleser로 학교 바로 한 블럭 거리에 off-campus에 살았는데 직접 알아보고 방문해보고 결정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400달러 이상이지만 운 좋게 저는 250달러로 수도세 난방비 포함에 wifi 10달러, 전기세 약 10 달러로 룸메 한명과 같이 썼습니다. 물론 방은 개인 방을 썼습니다. 대부분 미국 숙소가 밑에 카펫이 깔렸는데 애들 막 거기서 뒹굴고 뒹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러다가 피부에 곰팡이 생겨서 고생했습니다ㅠㅠ. 외부숙소에 살 경우 난방비나 이런거 잘 따져보세요. 겨울에는 살인적인 가격이 나올 수있어요. 난방이 잘 되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낮과 저녁에 두 번씩 돌려보셔서 시끄럽지는 않은지, 보완은 어떻게 되는지, 키는 따로 있는지, 세탁은 어떻게 하고,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는지, 쓰레기 버릴 때 따로 값을 받는지, 디파짓이 있는지, 케이블값을 내야하는지, 식기류는 같이 쓸수있는지,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차고는 있는지, 전구나 가구등 물품 파손 시 누가 물어야하는 지, 물은 잘 나오는지, 와이파이는 있지만 잘 작동 되는지, 룸메이트가 펫을 키우는 지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 끝나면 모조리 제 책임이거든요. Meal plan 안 쓸 때는 집에서 요리해 먹었는데 meal plan보다 싸게 먹힙니다. 학교 기숙사 안에도 요리 할 수 있습니다. 식기류나 이런 것들은 모두 룸메이트와 공유해서 써서 따로 돈이 들지는 않았습니.</p> <p>솔직히 기숙사는 East lake 아니면 비추입니다. 공용 욕실에 공용 부엌에 공용 방에 시설도 굉장히 좋지않아서 별레도 많이 나온다 들었습니다. 값도 East lake가 가장 쌉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0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0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75번 먹을 수 있는 block meal을 이용했습니다. 학교 음식이 초반엔 너무 맛있어서 자주 먹는데 나중엔 비슷한 패턴이라 금방 질려요. 일주일 내내 7번 쓰는 사람 봤는데 질려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2-3번정도는 적당한 것 같아요. Block meal 같은 경우엔 75번 먹을 수 있는데 다른 meal plan과는 달리 1년 내내 쓸수 있어요. 즉 다른 meal plan은 한 학기 지나면 초기화되서 돈 날릴 수 있는데 block meal은 봄학기까지 연장이 되서 좋아요. Meal plan 쓸 수 없을 때는 요리해 먹거나 사먹으면 되서 오히려 돈도 절약하고 무식하게 학교 식당만 먹는</p>

	<p>게 아니라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Block meal로는 학교 식사 뿐만 아니라 음료수나 스낵이나 쿠키 같은 걸 일정 값 이내면 대체해서 사먹을 수 있어요. 학교 식당은 본 캠퍼스와 웨스트 캠퍼스가 있는데 웨스트가 훨씬 맛있어요. 본 캠퍼스에는 학교 카페테리아 뿐만 아니라 중국음식, 샌드위치 등 사먹을 수 있어요. 건물마다 작은 카페가 있는데 급할 땐 샐러드나 스낵, 커피, 음료수 이런거 사먹을 수 있어요. 카페테리아 진짜 잘나와요. 뉴욕 주립대에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더니 자기 학교보다 훨씬 잘 나온대요. 무제한 뷔페식입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통학은 셔틀을 타거나(30분간격으로 자주있어요. 등하고 가능), 걸어다녔어요. 어떤 애들은 학교에서 자전거 빌려서 타고다니고(자전거 엉덩이 너무 아파서 오래못타요.. 빌리고 반납하는 시간이 정해져있어서 학생들도 간간히만 이용함), 보드사서 타고 다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시내간 이동으로는 암트랙이나 버스타고 다녔는데 버스는 보통 go care 회사 이용했어요. 근데 막상 보면 벤이 이동합니다. 모두 인터넷에서 티켓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구 차 타고 다녀야 합니다. 교통은 크게 보면 불편하지도 않고 나쁘지는 않지만 작게보면 무지 안좋아요. 뭘 어딜가려해도 차가 없어서 이동을 잘 못해서 답답했어요.</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150만원	미리 예약하세요. 순천향 디렉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항공 나중에 예약하래서 늦게 예약했는데 그럴필요없어요.
Fees	약 3500 달러	Meal plan 약 600 달러 포함
보험료	1465달러	학교의 필수 Health Insurance
숙소	약 4000 달러	기숙사 및 외부숙소
식비	한달에 약 250달러 총 약 2500 달러	정말 아껴 먹으면 이정도 나옵니다.
교통비	편도가 약 40달러 총 약 500 달러	

책값	약 300 달러	
기타1	800달러	봄학기 기숙사 취소
기타2	1000만원	여행비
합계	약 22000 ~ 28000 달러	1000원을 1달러로 계산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Fee 부분에 대한 말이 좀 달라지고, 사전 공지 되지 못한 것들이 꽤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있다곤 하지만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담당자에게 확실히 꼼꼼이 다 미리 물어보세요.

레벨별 영어수업은 처음에 많이 지루하고 적응도 쉽지 않아요. 교수 편차가 크고, 학생들도 많이 의욕이 없어요. 도움은 꽤 되지만 (특히 writing쪽으로), 오히려 그것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한국인이 아닌 원어민 친구들 많이 사귀세요. 가능하면 전공수업 위주로 들으세요. 많이 힘들겠지만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교환학생 온 학생들이 몰려다니는 편이에요. 미국인들은 끼리끼리 놀려는 성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정말 깊게 친해지기는 많이 힘들어요. 저도 거기서 깊게 친해진건 2명 정도, 어느정도 친해진 건 10명 이내로 환상을 많이 품고 가면 실망도 많이 합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는데 펜싱, 경영, 미술 등을 했었습니다. 인터네셔널 클럽이라고 그 클럽은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노래든 춤이든, 악기연주든 재능 뭐라도 있으면 무대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치킨 엄청싸요. 음식 엄청 짜고 기름져요. 저 살 13키로 찌서 왔어요...

약 같은거 뭐든 다 구비하고 가세요!! 약값 진짜 비싸고 병원가도 너무 비싸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힘들어요. 학교에 보건실 같은 데가 있는데 거의 이용을 안 했어요. 붕대, 파스, 감기약, 콧물약, 타이에놀, 오라메디, 근육통약, 영양제, 두통약, 지사제, 연고. 안약 등등 들고 갈 수 있는 건 다 들고 가세요!! 저는 빙판길에서 한번 발목뼈서고생했어요ㅠㅠ 가서 아무도 안챙겨줘요.. 아플때 아무도 없으면 서러움.. 자기 몸은 자기가 챙기는 걸로! 아 도착하자마자 무슨 주사 같은 거 놔줘요. 근데 무슨 주사였는지는 까먹었네요 ㅠ.. 맞고 부풀어오르면 돈내고 또 뭐 검사 받아야해요.. 보통 중동, 중국에서 온 애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더라구요.

책값 특히 너무 비싸요. 한국에서 사서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중고책을 구입하건가 e-book구입해서 혹은 아마존에서 대여해서 썼어요..! 아마존 좋아요! 일단 과목 정해지면 책 미리 구입하세요! 학교에서 구입하는건 빠르지만 아마존이 훨씬 싸요!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처음엔 많이 지루하고 할 것도 없고 재미가 없었는데 한 학기 지나니 적응도 되고 재밌는 활동 일부러라도 찾아서 하려하니 막상 할 건 다 있어서 재밌게 놀았어요. 친구들 많이 사귀세요. 영어로 된 책을 읽고 다녔는데 막상 보니 많이 못읽고 온 것같아서 많이 후회남아요. 주변 풍경이나 외국인들과 좀 더 추억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ㅠㅠ. 그렇지만 코리안 나이트에서 노래도하고 춤도 추고 카약이나 페달보트 카누, 펜싱, 보드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접하고 배우고 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업도 직접 미국인들 수업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좋았어요. 말하는 것에 대한 겁이 너무 많아서 처음엔 말도 잘 못하고 버벅이고 창피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우여곡절이 누구보다 많았는데 조금씩 자신감이 늘어서 현재는 친구도 많이 사귀고 무엇보다 영어 스피킹이 굉장히 많이 늘어와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보통 1년간 교환학생하면 스피킹은 많이 기대하지 말고 오라고 해서 저는 리스닝과 라이팅 위주로 늘릴걸 생각하고 갔는데 활동을 많이 하니 리스닝은 자동적으로 늘고 스피킹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왔어요. 저도 아직은 가끔씩 못알아들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초반에 어리숙하게 버벅이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자신감을 많이 얻어온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미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몰랐던 것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많이 알아가서 좋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커진 느낌이고 한 학기 졸업연장을 해서 갔다 온 것이라 비록 남들보다 늦은 졸업을 하지만 정말 뜻 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준 순천향대학교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영어실력을 살려서 제 전공 및 복수전공과 겸비해서 좋은 회사에 우선 취직하려고 합니다. 제 수학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학교 카페테리아에서의 첫 식사



학교 근처 부대시설 무료 실내 암벽 등반



이스크 레이크 위에서의 스포츠 활동



학교에서 진행한 말레이시안 나이트





학교 도서관과 학교 건물



이스트레이크 1인실 기숙사 방 내부와  
겨울 눈내린 위노나 풍경